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 위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성 명	김영란 조선주 배호중
출장기간	2018.11.5.(월)~11.8.(목)		출장지	중국 북경		
출장목적	<input type="checkbox"/> 연구진 Workshop 개최 <input type="checkbox"/> 중국의 인구 관련 연구자들과 Research Workshop 개최					
경비부담	해당 수탁연구사업비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관/참석자				행사내용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연구위원), 조선주(선임연구위원), 배호중(전문연구원)○中国社会科学院 社会学研究所: 마춘화(马春华), 장리핑(张丽萍)○ 人民大学: 李婷(中国人民大学社会与人口学院 副教授) 杨菊华(人民大学 教授) 孙鹃娟(人民大学社会与人口学院 副教授) 陶涛(人民大学 副教授) 杨凡(人民大学社会与人口学院 副教授) 周祝平(人民大学 副教授) 谢立黎(人民大学 讲师) 赵梦晗(人民大学社会与人口学院) Ma Liang(人民大学 國家發展與戰略研究院) WEI Qinggong(人民大学 家發展與戰略研究院) SongJian(人民大学 教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Workshop 개최○ 중국의 인구 관련 연구자(인민대 인구학과)와의 Research Workshop 개최	

※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8. 11. 12.

출 장 복 명 자 : 김영란, 조선주, 배호중

국외출장보고서

- 연구진 Workshop 개최
- 중국의 인구 관련 연구자(인민대 인구학과)와의 Research Workshop 개최

2018. 11

1. 출장개요

- 과제명: 저출산 대응 한·중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 출장지역: 중국 북경 (중국사회과학원, 중국 인민대학교)
- 출장자(총3인): 김영란(연구위원), 조선주(선임연구위원), 배호중(전문연구원)
- 출장기간: 2018년 11월 5일(화) ~ 11월 8일(목) (3박 4일)
- 비용부담: 해당 수탁연구사업비

- 본 연구는 중국 현지의 객원연구원(중국사회과학원 소속 2인)과 함께 진행되는 연구로 한·중 연구진 간 보고서 집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서울) 및 중국(북경)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조사 진행 과정 및 분석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함.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인구문제를 둘러싼 학문적 관심 및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진 중국의 인구 관련 연구에 대한 최신 동향을 수집하고 가용한 중국의 최신통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국 현지 출장(연구진 Workshop 및 중국 인구학 연구자들과의 Research Workshop 개최)을 통해 한·중 공동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양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결과를 담아내고자 함.

- 출장목적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진 Workshop 개최

- 중국의 공동연구자(중국사회과학원 소속 2인)와의 집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논의
 - 일시 및 장소: 11월 6일(화) 09:00~18:00, Novotel Beijing Peace Spring room
 - 한·중 연구진의 집필 중인 보고서 초안의 상호 발표 및 공동 검토
 - 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및 논리적 일관성 제고를 위한 논의

- 한·중 실태조사 조사표 검토 및 자료 분석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11월 8일(목) 09:30~14:00, Novotel Beijing Peace 카페
- 혼인·출산 등을 둘러싼 한·중 미혼여성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조사대상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 미혼여성 한국과 중국 각 400명, 총 800명

- 한국: 25세~34세 서울 거주 미혼여성 400명
- 중국: 20세~29세 베이징 거주 미혼여성 400명

- 조사표 검토 및 분석 방향, 조사대상자 관련 논의 진행

② 중국의 인구 관련 연구자들과 Research Workshop 개최

(中國 人民大學校 인구학과 소속)

- 일시 및 장소: 11월 7일(수) 09:00~14:00, 人民大學校 인구학과 세미나실
- 중국의 인구 관련 연구에 대한 최신 동향을 수집하고 가용한 중국의 통계 등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 행사 참석한 전문가들을 통해 본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 청취 → 본 연구진의 발제 및 토론/ 人民大學校 인구학 소속 연구자의 발제 및 토론 진행

③ 기타 사항: 학술세미나 개최 및 MOU체결(人民大學校) 件

- 최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술세미나(2019년 1월 예정) 개최 관련 논의

- 일시 및 장소: 11월 7일(수) 14:00~15:00, 인민대 송덕루 SongJian교수 연구실
- 국제학술세미나 토론 초청 및 내용, 일정논의, 사회와인구학원과의 지속적 학술교류 협의
- 협의 기관: 중국 人民大學校 SongJian 교수[토론자(예정)]

- 人民大學校 國家發展與戰略研究院 Ma Liang 교수 면담

- 일시 및 장소: 11월 7일(수) 15:00~17:00, 人民大學校 國家發展與戰略研究院
- 본원과의 MOU 진행 관련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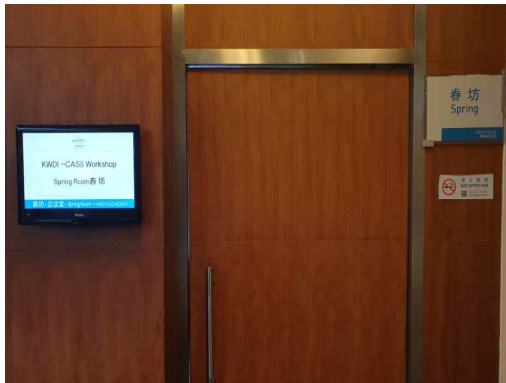
□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일 자		지 역	일 정	비 고
11.5.(월)	13:00 (출발) ↓ 14:10 (도착)	한국(인천) ↓ 중국(BEIJING)	한국 <u>인천</u> 국제공항 ↓ 중국 BEIJING 공항	▪ OZ333편 (ASIANA AIRLINES)
11.6.(화)	오전	회의장 임대 (Novotel Beijing Peace Spring room)	▪ 한·중 육아지원정책 등 관련 정책 동향 정리	▪ 연구진 Workshop ▪ Novotel Beijing Peace Spring room
	오후 (14:00~)		▪ 한·중 인구정책 관련 논의	
	저녁 (19:00)		▪ 학술세미나('19.1월 예정) 발표원고 내용 및 세부 일정 논의	
11.7.(수)	오전 (9:00~12:00)	중국 BEIJING (人民大學校)	▪ 중국의 인구학자들과 Research Workshop 개최	▪ 中國 人民大學校 인구학과 소속 연구자들 참석
	오찬(12:00~)		▪ Research Workshop 참석자들과의 오찬	▪ 中國 人民大學校 내 Faculty hall 식당
	오후 (14:00~15:00)		▪ 인민대 사회인구학원 송지안교수와 학술대회 및 연구협력 논의	▪ 人民大學校 송덕루 SongJian교수 연구실
	오후(15:00~)		▪ 中國 人民大學校 國家發展與戰略研究院 Ma Liang 교수 등 면담	▪ 人民大學校 國家發展與戰略研究院 (Floor 8, Tower A, Scientific Research Building, Renmin University of China, No. 59, Zhongguancun Street, Haidian District, Beijing)
11.8.(목)	오전 (9:30~14:00)	중국 BEIJING	▪ 중국의 인구 구조 및 혼 인 및 출산 관련 가용 통계 현황 논의 ▪ 조사진행상황 논의 ▪ 한·중 실태조사 자료 분석방안 논의	▪ 연구진 Workshop ▪ Novotel Beijing Peace 카페
	19:20(출발) ↓ 22:20(도착)	중국(BEIJING) ↓ 한국(인천)	중국 BEIJING 공항 ↓ 한국 <u>인천</u> 국제공항	▪ OZ336편 (ASIANA AIRLINES)

2. 발표 및 논의 내용 요약

□ 11월 6일(화)

- 내용: 제1차 연구진 Workshop
- 장소: Novotel Beijing Peace Hotel(Spring room)
- 시간: 09:30~18:00
- 참석자: 본원 연구진+중국 공동연구진



○ 그간 연구진행상황을 공유하자면 지난 11월 1일(목) 발주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함(앞에 둔 중간보고 자료는 중문으로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가져옴).

- 최종보고서 제출일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2018년 12월 20일(목)까지는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어야 함. 2019년 1월 중(1월 17일 예정)에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중국 사회과학원의 두 분 공동연구진께서 그 때 한국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필요로 하실 경우 행사개요가 담긴 초청공문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음.

- 중간보고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중국의 인구관련 정책이나 현황자료 등이 병렬적으로 기술되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시되면 좋는데 중국의 현황이나 정책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있음. 제도의 변화나 사회상의 변화 등에 대한 단순 나열보다는 특징적인 제도나 법령 몇 가지라도 담긴 의미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아주시면 좋겠음.

(ex. 총인구·총부양비+출생아수·합계출산율+인구정책 / 총인구추이→출생아수 추이→합계출산율 추이→중국의 「계획생육」 정책 등 흐름과 이에 담긴 의미 등 기술) ⇒ 「인구현황변화」와 「인구정책」이 보조를 맞추어 설명되는 것

이 최상의 전략일 수 있음.

- 가능하다면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주거지원 정책’ 등도 출산이나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제도뿐만 아니라 제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나 입법목적 등)도 함께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임. 쉽지는 않겠지만 ‘정책-현황-인식’이 어떻게 interaction하는지 까지도 함께 담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임.
- 조사의 경우 ‘미혼여성’, ‘특정연령대’ 등과 같은 제한된 코호트에 대한 조사라는 한계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연구기간/예산 등의 제약으로 다양한 대상을 다 담기는 어려우므로 북경과 서울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예컨대 북경은 ‘중국 전체 평균에 비해 ~~한 특성이 있음’ 등을 설명) 조사대상 선정이유 등을 명확히 하여 양국의 공통점/차이점을 합당하게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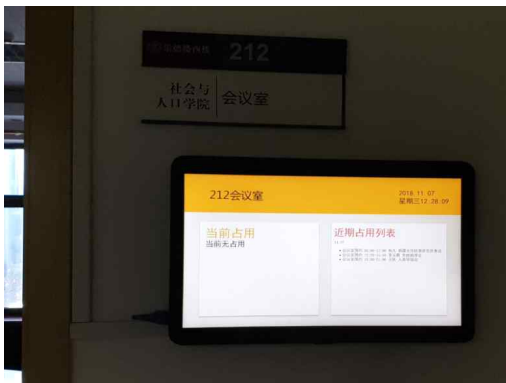
○ 중국의 경우 지역(예컨대 북경/대도시/농촌 등)에 따라 엄격의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자녀 정책이 사라짐.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딸인 경우 둘째출산 가능→부모가 양쪽다 한자녀인 가구의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음(2011)→부모 중 1인이 한자녀인 경우 둘째 출산 가능(2013)’ 등과 같이 확대되어 옴. 이같은 중국의 두자녀 가족계획정책으로 인해서인지 두아이를 갖는 가구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만 무자녀가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전체 출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예컨대 2017년 첫째아 출산은 724만명(?) 정도로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수치를 기록함).

중국은 60~70년대 정책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기 시작하다가 개혁·개방 이후에는 여성들은 가정에 보다 충실하자는 사조가 나타나기도 함.

○ 한국과 중국 간 비교연구인만큼 양국의 합당한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임. 중국의 경우 ‘M자 곡선’이 20대 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한국에 비해 이른 것으로 보임. 한국은 노동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 여성을 기준으로 출산이 주로 30대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령차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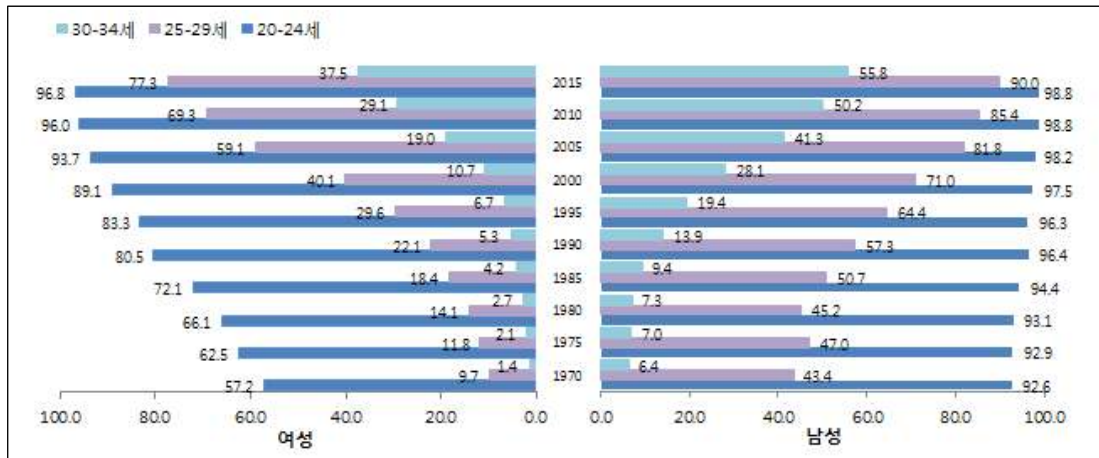
□ 11월 7일(수)

- 내용: 중국의 인구학자들과의 Research Workshop
- 장소: 人民大學校 승덕루 인구학과 212호 세미나실 및 人民大學校 내 Faculty hall 식당
- 시간: 09:00~14:00
- 참석자: 본원 연구진+人民大學校 인구학과 소속 연구자들



<한국사례 논의>

- 한국은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 국가적 차원의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괄목할 수준의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음. 한국의 인구는 2018년을 기준으로 51,635,256명인데 2031년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전체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또한 동시에 예상되고 있는데 2018년 37,574천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이미 감소세로 돌아섬.
- 1970년 100만명에 달하던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2017년 357,771명으로 1/3 정도로 줄어듦. 2018년에는 이보다 더 적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합계출산율 또한 1984년 1.74, 2005년 1.08, 2017년 1.05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2018년에는 1.0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함.
- 출산뿐만 아니라 혼인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34세의 미혼인구비율’을 보면 미혼인 이들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출산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나가고자 하고 있으나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음.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함께 많은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진단과 정책발굴이 필요함. (저)출산을 둘러싼 한국의 정책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눠 소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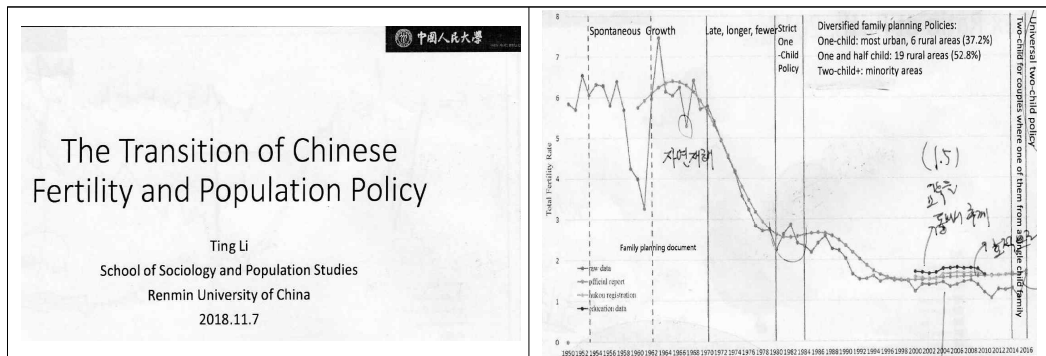
육아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5세 무상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 근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월 10만원 지급 - 근거: 아동수당법 가정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월 10만원~20만원 지급 - 근거: 영유아보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50만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2세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보육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계층 월 10만원 지원 - 근거: 영유아보육법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4만원 이내 아동이 적립할 시, 국가(지자체)가 동일금액 적립 = 월 최대 8만원 저축 - 근거: 아동복지법 영유아건강검진(6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p>(취약계층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녀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미만 자녀, 연50만원 - 근거: 근로조세특례제한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14세미만 월1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만5세이하자녀) -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해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43%이하, 해산비용 60만원 지원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80%이하, 산후도우미 파견 -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도입, 연간 최대 3일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설치, 설치 지원 - 근거: 고용보험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15시간~30시간미만, 고용보험에서 급여지원 - 근거: 고용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대상(19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지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기숙사 등 - (금융지원) 청년우대 청약통장, 전세대출지원, 월세대출지원, 내집마련 대출 ▪ 신혼부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지원)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 공급, 행복주택, 분양전환임대특별공급, 신혼전용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신혼부부 전세임대 - (금융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주택구입대출

- 앞서 소개한 제도들이 출산을 둘러싼 대표적인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육아/출산에 관한 정책 외에도 일자리 및 주거 관련정책 등 다양한 측면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음.

<중국사례 논의>

- 중국 또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이는 국가적으로 ‘소자화 정책’ 등을 펼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완화(두자녀 정책 등) 된 이후에도 출산율은 낮아졌으며 최근까지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져 출산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음.



- 중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통계가 엄밀하지는 못하다는 한계(예컨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 등 때문)도 있기는 함. 그래도 위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한 추세를 볼 때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함.
- 산아제한과 출생아의 성비를 살펴보면 산아제한 하면 성비가 (남아선호) 상당한 불균형을 나타낼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음. 둘 간의 관련성은 불분명하며 최근 들어서는 성비가 자연출생율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음. 지역과 출생율 간의 관계를 살핀 결과에서는 대도시의 출산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러한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음.

- 李婷교수님께서 최근에 ‘중국인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까?’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셨음. 강력한 어조로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또한 당분간은 출산율이 눈에 띄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필요하신 경우 논문을 보내드리겠음. 또한 트위터랑 웨이보를 가지고 ‘둘째출산’ 관련 인식을 살피고자 댓글들의 어조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둘째출산’에 대한 부정적 의견(예컨대 누가 키워? 국가 정책에 반함 등)이 주를 이루다가 둘째출산에 대해 가치중립적 의견(낳을 수도 있음 등) 그리고 최근에는 이를 넘어 둘째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본인들도 둘째를 고려함. 이러다가 인구가 줄어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음이 보임.
- 중국의 출산 패턴을 살펴본 결과 전체출산에서 둘째 이후의 추가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었음을 알 수 있음. 중국 또한 혼인이나 첫출산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음. 북경지역이 평균초혼연령을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남녀 모두 30세를 넘어섰다는 조사도 있음. 물론 이 같은 수치는 북경이라는 특성상 중국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중국 또한 만혼, 만산의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음.
- 중국의 출산지원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아직은 저출산을 국가/사회적 위기로 인식하지 않은 까닭에서인지 앞서 말씀해주신 한국에 비해 출산을 지원하는 명시적인 정책들은 많지가 않음. 중국에서 시행 중인 몇가지 제도들을 살펴보면 ‘인구검측과 가정발전사’라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의 질적역량 향상을 꾀하기 시작했으며(2018년 9월~)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아동 1인당 12,000위안) 제도를 시행함(2018년 10월~). 출산휴가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98일 이상 제공되어야 함(상해 같은 경우는 180일까지 제공함). 배우자 출산휴가도 7~30일까지 제공됨. 출산휴가 이후 복귀율도 상당히 높음.
- 아직은 상당히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공공유치원 설립 또한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됨. 광저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립유치원비 vs. 사립유치원비의 차이가 10배가 넘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시작됨. 허베이나 신장 같은 지역에서는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보험지원제도도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지린성 등에서는 둘째아에 대한 보조금도 제공되기 시작함. 랴오닝성 등에서는 착산전후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은 몇몇 지역에(특히 농촌지역에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국한된 제도들이긴 하지만 출산을 위한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녀양육비(상당한 양육비용 및 교육비), 생활비(주거비 등) 등 한국과 대동소이함. 중국의 인구관련 현황 및 정책은 다음의 자료로 살펴볼 수 있음.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 논의>

- 내용: MOU체결(人民大學校) 및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 논의
- 장소: 人民大學校 승덕루 SongJian교수 연구실
- 시간: 14:00~15:00
- 참석자: 본원 연구진+ SongJian 교수(人民大學校 사회와인구학원)



- 우선 본 연구의 진행과 관련해 연구결과를 가지고 2019년 1월 한국(서울)에서 세미나를 하고자 함. 중국사회과학원의 마춘화, 장리핑 교수님께서 공동연구자이고 중국의 인구현황 및 관련 정책들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인데 SongJian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으면 함. → 아마도 그 때는 학기의 마지막 주라서 일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일정 재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겠음.
- SongJian 교수가 人民大學校 사회와인구학원과의 향후 학술교류를 위한 MOU 추진을 제안함. 사회와인구학원 인구발전연구소가 연구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학술교류가 가능할 것임. MOU를 통해 공동연구진행 등 학술 교류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함.

<MOU체결(人民大學校 國家發展與戰略研究院) 논의>

- 내용: MOU체결(人民大學校 國家發展與戰略研究院) 논의
- 장소: 人民大學校 國家發展與戰略研究院(승덕루 815호)
- 시간: 15:00~17:00
- 참석자: 본원 연구진+ Ma Liang 교수, Wei Qingong 교수 (人民大學校 國家發展與戰略研究)

- 人民大學校 國家發展與戰略研究院과의 MOU체결과 관련 면담

-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소개 : 중국 정부 지정 26개 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로, 200명의 연구원이 있음. 연구원에는 교수를 겸직하는 연구원과 상주연구원 11명이 있음. 중국의 정책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며 당중앙 국무원에 보고함. 연구 분야는 경제, 법률, 정책, 사회분야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음. 국제화 관련 협력으로는 일대일로 국가와 다수의 협력관계가 있으며, 양자간 다자간 교류협력을 하고 있음. 대학연매소속 국가와 교류중임. 한국과의 교류는 한국여성정책연권이 처음임.
- MOU 이후 협력 분야 : 여성지위나 저출산, 여성권익 관련 한국의 경험에 대하여 관심이 있음
- MOU 초안은 검토 중이며, 이후 학교 법무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조인식 관련해서는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면 함

□ 11월 8일(목)

- 내용: 제1차 연구진 Workshop
- 장소: Novotel Beijing Peace Hotel 카페
- 시간: 09:30~14:00
- 참석자: 본원 연구진+중국 공동연구진

【조사표 관련논의】

- 데이터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집단 정보가 있고 그에 따라 특성별로 할당·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면 더욱 좋을 것임. 『북경통계연보』를 기반으로 하면 ‘북경의 미혼여성’에 대한 통계치를 알 수 있을텐데 『북경통계연보』가 북경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구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북경 거주 미혼여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북경호구(주민등록)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북경의 미혼여성’을 정의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설문에 대한 소개 및 인사말 부분에 ‘『한국의 통계법 제31조』’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 보다는 ‘중·한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본 조사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임.

- ‘(향후)결혼을 할 것이냐?’ + ‘(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는 것은 어떠한지?

‘결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질문은 추가하는 것은 어떠한지?→이러한 질문 등을 통해 결혼하려는 이유에 대해 물으면 은연중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음. 예컨대 ‘11-3 문항’으로 결혼을 하려는 이유는? ①사회적 압박, ②부모의 압력, ③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④아이를 낳고 싶어서(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녀), ⑤인생의 당연한 경과이므로, ⑥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서(2인 생계부양 모델) 등을 답하는 것은 어떠한지?

중국의 경우 결혼을 해야 인가증이 나오고 인가증이 있어야 출산 가능(인가증이 있어서 아이의 건강검진 등 가능)

- ‘Q3-1 결혼식 비용에 대한 부담’과 관련해서는 결혼당사자의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고 부모의 도움이 상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를 함께 넣어 물어야 할 것 같음.

	신랑(부모) 또는 “남성쪽”	신부(부모) 또는 “여성쪽”
(1) 결혼식 비용		

- 더불어 중국의 경우, 특히나 북경에서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은 “자동차(이것이 등록 등의 비용, 절차의 어려움이 상당함)”를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므로 이것에 대한 질문도 있으면 좋겠음. ‘신혼살림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가전제품, 옷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음. 두루뭉술하게 질문하면 ‘비용’에 대한 대답이 어려울 것임.

- ‘Q11-2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항목이 (중문 번역문장)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음.

예컨대 ⑥결혼생활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⑥혼후생활 지출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서 / ⑦→⑦결혼하면 자기일에 영향이 있어서(제시한 팔호내용이 오히려 혼란을 줌?) / ⑧ & ⑨: 자칫 비슷해보일까봐 “⑨여가·문화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 ⑫→⑫자기자신에게 더 충실하고 싶어서 / ⑬→⑬팔호안내용(=마땅한 사람이 없어서)만 남기기

- 개인특성과 관련해서 중국은 “독생자”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면 좋겠음. SQ에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묻고 ‘남자형제 ____명, 여자형제 ____명’

11번 질문뒤에 ‘(첫자녀를) 출산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남성(남편)이 ____세 일 때, 여성(아내) ____세 일 때~ 라는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임.

- 그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평균 혼인연령≠북경의 평균 혼인연령”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이는 출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event)이 일어나는 시기는 아마도 ‘중국의 평균 연령 +5세’ 쯤 되지 않을까 싶음. 바이두에 있는 자료를 보면 초혼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7세(남성), 26.2세(여성) 쯤 되는 것으로 나옴. ‘북경호구’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음. + 북경호구가 없다면 ‘언제 북경에 왔는지?’도 함께 물을 필요가 있음.

‘왜 결혼하고 싶은지?’하는 질문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라는 항목을 넣는 것은 괜찮아 보임. Q12 뒤에 “희망자녀수” 넣고 “남아선호하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Q12-1’은 ‘자녀 불원의 이유≠1명만 갖기를 원하는 이유’일 것이므로 ‘자녀를 두지 않거나/1명을 두기는 희망하는 이유를 함께 묻는 것’은 2순위까지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응답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있음.

‘Q12-1’ 응답항목에 ‘출산적령기를 지나서’를 넣을 필요가 있음. ‘Q12-1’보기 중 ‘⑧사회활동→여가·문화생활 등’, ‘⑥→⑥봐줄사람이 없어서 vs. 봐줄기관이 없어서’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어떤지? 이에 따라 나중에 정책제언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임. ‘Q13’ 결혼비용의 예시에 ‘자동차 구입 비용’을 추가로 언급하기 + ‘지원’이라는 단어(중국어)를 ‘지지’로 번역하는 것이 나아보임.

- 중국의 경우 ‘전세’제도가 있지는 않으므로 한국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면 좋겠음. 대신 중국의 경우 ‘친척의 주택’, ‘정부지원 저렴한 주택’, ‘친구집’ 등에 사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음. DQ1-4의 경우 주거비가 수입의 몇 %인지? 등을 물으면 양국 비교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함.

- ‘Q17’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응답항목을 1~5점 척도로 묻는 것이 나아보임. 가장 우선 순위를 꼽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요구)정도를 측정해서 정책제언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아보임.
(양육비용지원/시설확충/휴가확대/배우자 출산휴가확대 등에 대해 1~5점으로 묻고 가능하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도 살펴보면 좋을 것임)

3. 발표자료: 별첨